

錦溪 黃俊良의 역사의식과 의리관 고찰 - 士宦期 前期의 글들을 중심으로 -

이 규 필*

- I. 문제 제기
- II. 역사학적 면모와 역사의식
- III. 士의 책무의식과 의리관
- IV. 나오며

국문초록

錦溪 黃俊良(1517~1563)은 퇴계학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이제까지 그에 관한 연구는 주로 황준량이 퇴계에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이에 대해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황준량의 본래 모습을 먼저 조명하고, 그것이 퇴계를 만나 어떻게 변모, 확장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황준량의 사환기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선비와 역사가에 대한 사유를 탐색하고 유난히 밀도 높은 그 역사의식과 의리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조교수 / gdfeel@hanmail.net

관을 고찰해 보았다. 황준량은 퇴계학의 여러 국면 가운데 특히 『주자서절요』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는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황준량이 퇴계를 만나 학문을 완성하였지만 그 바탕에는 자신 특유의 역사의식과 의리관이 지속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논증하려 하였다.

황준량과 퇴계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 주제어

錦溪 黃俊良, 退溪 李滉, 士와 역사가, 역사의식, 의리관

I. 문제 제기

풍기 錦溪里에 살았던 黃俊良(1517~1563)은 어릴 때부터 자질이 남달라 18세에 南省試에서 策問으로 이름을 떨쳤고, 21세에 생원시에, 23세에 庭試에서 直赴會試하였으며, 급기야 24세에 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여 星州 訓導가 되었다. 타고난 천재성으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낸 문인관료의 전형적 행로이다. 또 농암 이현보(1467~1555)의 孫壻였고, 일찍이 퇴계(1501~1570) 문하의 高足이었다. 이 때문에 당대에 이미 영남 사림의 촉망을 받았으며, 학계에서도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금계는 초기에 사학계와 국문학계에서 주목받았다. 사학계에서는 그의 역사의식에 주목하였다. 국문학계에서는 『竹溪誌』에 경기체가 수록 여부를 쟁점으로 愼齋 周世鵬(1495~1554)과의 토론에서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 농암의 「어부사장가」와 「어부단가」의 원본 제공자로서, 또 분강 가단의 후계자로서 주목하였다. 이후 금계에 대한 연구는 漢詩, 散文, 『주자서절요』 편찬에 관한 연구, 경세의식과 목민활동, 서원 활동과 교육론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금계집』이 번역되었다.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연구 성과가 제출된 지금으로서는 금계의 생애와 학문, 문학과 경세의 거의 전모가 다루어진 셈이다.¹⁾

1) 금계에 관한 연구는 1980년 박노춘의 「금계선생문집해제」(『국학자료제』36, 장서각)로 시작하여, 1989년 김기빈의 「『금계집』해제」(한국문집총간37), 1990년 윤천근의 「황준량의 역사의식」(『퇴계학』2,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1992년 김주한의 「금계 황준량의 簡介」(『퇴계학』12, 안동대 퇴계학연구소)가 발표되었다. 1996년에 길진숙의 「주세붕의 『竹溪誌』 편찬과 시가관」(『민족문학사연구』11, 민족문학사연구)과 우용순의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창설과 국문시가에 대한 방향 모색」(『어문논집』35, 안암어문학회)이 발표되었고, 1997년에 최재남의 「금계 황준량의 삶과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5, 한국한시학회)가 발표되었으며, 이윅고 1998년 강성준에 의해 석사학위논문(「금계 황준량의 문학과 사상」, 안동대)이 제출되었다. 2001년 김시황이 「금계 황준량 선생과 풍기지역 퇴계학맥」(『퇴계학과 유교문화』30, 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을, 최석기가 「황준량의 지리산 기행시에 대하여」(『동방한문학』47, 동방한문학회)를 발표하였다. 2011년에 강구윅에 의해 삶과 학문이 거듭 조명되더니 2014년에 김종석이 「금계 황준량의 사상과 퇴계학 계승 양상」(『퇴계학보』136, 퇴계학연구원)을 발표하였다. 또 이해에 『국역 금계집』(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중

다만 錦溪 연구와 관련해 몇 가지 생각해볼 지점이 없지 않다. 금계 연구에는 신재, 농암, 퇴계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중에서도 퇴계의 자장은 너무 강력하여 때로 그 연구의 주인공이 퇴계가 아닌가 하고 여겨지는 때도 없지 않을 정도이다. 금계의 생애와 학문에 미친 퇴계의 영향력을 규명하려는 것인지, 혹은 퇴계학의 완성에 금계가 기여한 역할을 밝히려는 것인지 그 목적이 다소 모호한 경우마저 있다. 그만큼 금계의 삶과 관력, 사유와 학문에서 지속적으로 퇴계가 소환되었다.

물론 거기에는 신재, 농암, 퇴계를 빼고 금계를 논하기 어렵다는 나름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특히 퇴계의 경우 금계가 세상을 떠나자 스승으로서 손수 행장을 지어 제자의 일생을 기록해주었고, 또 대표 문장을 선택하여 문집을 엮어주기까지 하였다. 뿐인가. 만사와 제문을 남겨 남다른 안타까움과 애뜻함을 드러냈다. 때문에 금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이런 지점을 깊이 의식하고 있다.²⁾ 그런데 바로 지금 언급한 것들이 금계 연구에 문제적 지점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퇴계가 문집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상징성이 이미 너무 강력하기에 금계 연구는 대체로 그 논지 전개의 방향이나 결론이 이미

호가 「백운동 학풍을 이어 은혜를 베풀고 교육을 진흥한 목민관」이라는 부제의 해제를 작성했다. 2016년에는 정시열이 「금계 황준량의 산문 시탐」(『한민족문화연구』55, 한민족문화연구회)을, 2017년에는 권석창이 「황준량의 옥양서원 출향과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 배경에 대한 고찰」(『한국학』40, 한중연)을, 구완희가 「금계 황준량의 관력과 목민 활동」(『영남학』63권,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을 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최석기가 「금계 황준량의 경세의식과 정신지향」(『영남학』64권,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2002년에 발표된 최재남의 「분강 가단의 풍류와 후대의 수용」(『배달말』30, 배달말학회), 2012년에 제출된 최재기의 박사논문 「퇴계 이황의 『주자서절요』 편찬과 그 간행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등에서 금계의 문학과 학문에 대한 주요 국면들이 논급되었다.

- 2) 앞의 주석에 언급한 선행 연구의 제목이나 주제들만 보더라도 퇴계를 비롯하여 신재와 농암의 그림자가 뚜렷하다. 특히 연구의 초창기에 발표된 윤천근의 논문에서는 제2장의 첫 부분에 “황준량은 퇴계 문하의 한 사람으로써 퇴계 학문의 입장과 성격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람이다.”라고 언명하였는데, 금계 연구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시각과 기조로 일관되고 있다. 윤천근, 「황준량의 역사적식」, 『퇴계학』 2, 안동대퇴계학연구소, 1990, 84쪽.

제목에서 대체로 그려진다. 실제로 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금계가 퇴계의 학문에 경도되었고 또 퇴계학의 완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결국 금계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금계 연구에 있어 먼저 금계가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토할 필요가 있다. 금계 본래의 내면과 사유를 살펴보고 나아가 금계의 어떠한 사유가 퇴계학의 어떤 측면으로 연결되는지를 추적하고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인데, 요컨대 금계라는 학자 개인의 내재적 인자를 먼저 밝혀보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 프로세스를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금계의 연구는 대체로 그의 글을 저술 시기의 선후 구분 없이 동일선상에 놓고 성격별로 주제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금계의 시문에서 퇴계학의 키워드에 부합하는 지점을 찾아 금계가 퇴계학에 기여한 부분과 그 위상을 입증하려 하였다.

논자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다소 바꾸어 금계의 사유와 학문에 관한 정밀한 기초 연구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애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³⁾ 저술 시기를 밝혀 작품계년보를 작성하고, 퇴계와의 만남의 과정을 면밀하게 고증하여 추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금계 사유의 본연적 특징, 성장과 변화, 퇴계학으로의 연결 과정과 그 성격 등이 요연하고도 귀납적으로 밝혀질 것이라 전망한다.⁴⁾

3) 이 점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한바 있는데, 구완회는 금계의 생애에 관한 연구가 행장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관력과 목민활동에 관한 금계의 이력을 정밀하게 추적하였다. 자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밀하게 관력을 추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논자는 여기에 큰 감명을 받은 한편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완회, 「금계 황준량의 관력과 목민 활동」, 『영남학』 6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165~166쪽.

4) 비단 금계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시각과 방식으로 조망된다. 각 학자들의

다만 위에 언급한 모든 것을 본고에서 모두 다루거나 논증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선 그러한 방법이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해 주로 금계의 1차 仕宦期⁵⁾까지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금계의 역사의식과 의리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금계의 1차 사환기까지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본고의 성격상 길게 논하기는 어렵지만, 1차 사환기까지는 금계가 아직 퇴계에 깊이 경도되기 전이라고 판단된다. 퇴계와 금계가 처음 만난 것을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542년 전후 곧 금계의 20대 중반으로 짐작된다. 『龔巖集』의 기록을 볼 때 금계가 장조부 농암의 집에 드나든 것은 20대 초중반이던 1540년 전후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퇴계와 금계의 이름이 동시에 보이는 첫 기록이 1542년에 보인다.⁶⁾ 이 무렵을 첫 만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의 처음 대면이 이보다 훨씬 빨랐을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금계가 퇴계를 만나자마자 바로 경도되어 스승으로 섬겼는지 여부 역시 알 수 없지만, 문헌의 여러 기록을 볼 때 금계가 퇴계를 존모하여 본격적으로 따랐던 것은 1550년 이후의 일로 판단된다.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정석태 編)에 1544년 4월, 서울에서 퇴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금계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하였고, 이 외에도 1546년 5월 함께 청량산

학문 속에서 퇴계학의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퇴계학이라는 커다란 용광로 속에 각 학자들의 개성은 사라지는데, 패턴화된 이러한 연구는 퇴계학과 내의 다양한 풍경을 포착하는 데도 그다지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역동성이 현저히 반감되기 때문이다. 이는 남명학과를 비롯하여 다른 학파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5) 금계는 1540년 문과 급제 이후 관직에 진출하였다가 1548년 부친상을 당하여 잠시 풍기에 내려와 있었다. 이후 1550년부터 조정에 복귀하였다. 후술하겠지만 1550년 이후부터 금계는 퇴계의 학문에 깊이 경도되어 자신의 학문 형성은 물론 퇴계학의 여러 국면에 크게 기여한다. 요컨대 1550년 이전 1차 사환기의 금계와 1550년 이후 재출사기의 금계는 문학과 학문 및 경세 등 여러 방면에서 달라져 있다. 이에 논자는 그의 환로를 1차 사환기와 2차 사환기로 나누고, 본고에서는 1차 사환기까지의 글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6) 이현보, 『龔巖集』 卷1, <題靈芝精舍>.

에 가기로 했다가 취소했던 일, 1547년 3월에 퇴계가 금계의 『方丈山遊錄』을 읽고 소감을 詩로 지어서 보냈던 일 등 둘의 교유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지만, 1550년까지는 그야말로 ‘산견’되는 정도이다. 그러다가 1552년부터 둘 사이의 시문 수창과 토론 서신들이 폭증한다.

또 하나, 퇴계가 서울에서 도산으로 돌아와 양진암을 짓고 전적으로 학문에 침잠한 시기는 1546년부터이며, 한서암을 짓고 본격적으로 강학 활동을 한 것은 1550년 무렵부터이다. 젊은 학인들이 문하에 모여든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말하자면 금계의 1차 仕宦期 시절인 1540년 무렵부터 1550년(금계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10년 정도는 대체로 금계가 퇴계와 교유하기는 하였으나 시문을 수창하거나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금계가 본격적으로 경도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부터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략 1549~50년 이전까지의 글에는 금계의 젊은 시절 오롯한 자신의 사유와 경세관이 비교적 잘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금계의 1차 사환기까지의 작품들은 대체로 內集에 실리지 못하고 外集에 실렸다. 내집은 퇴계가 엮은 초간본이고, 외집은 그 이후 금계의 나머지 작품을 수습하여 엮은 일종의 보유편이다. 때문에 내집과 외집에는 각각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내집은 무엇보다 퇴계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퇴계 자신이 몸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글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금계의 글 가운데 퇴계가 보지 못하고 뒤에 寒岡에 의해서 수습된 작품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 이와 관련하여 ‘취사의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고 밝힌 訥隱의 견해도 새겨들을 만하다. 그러나 訥隱은 바로 그 아래 ‘단양군의 형편을 보고 그 가운데 더욱 절실한 것을 전하고자 했을 뿐’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다.⁷⁾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글들 가운데 우선 묶어야 할 글을 뽑을 때 전혀 어떠한 기준이나 시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7) 이광정, 『錦溪集』外集, <錦溪集外集跋>, “且念内外文集, 皆咳唾聲氣之餘也, 固無工拙之可揀, 而老先生所抄, 不過五之一, 恐非爲所取舍也, 視丹郡事力 而姑傳其尤切者耳.”

상상할 수 없다.

내집에 실린 글들 가운데 雜著에 編載된 산문들이 대개 금계 40세(1556) 이후에 지어진 글들이란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잡저에 편재된 첫 글 「단양진폐소」가 41세인 1557년, 두 번째 글인 「玄風客舍重修記」이 그 이후 어느 시기(1557~8년 무렵), 세 번째 글인 「與迎鳳書院諸生書」이 1560년 무렵에 지어진 것이란 사실이 저간의 사정을 짐작케 한다.

이어진 네 번째 글 역시 마찬가지이다. 금계가 영봉서원에 관해 퇴계에게 질정한 「上退溪書」이다. 이 편지는 『退溪集』과 상호 대조해볼 때 신유년 1561년에 퇴계가 금계에게 보낸 편지 중 제3서 「答黃仲舉」와 관련이 있다. 이들 편지들을 두고 당시 주고받은 해당 왕복서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금계의 저 편지가 작성된 시기가 역시 이보다 훨씬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아래에 編載된 글들도 대략 같다. 이 내집을 관류하는 키워드는 전반적으로 ‘학문과 교육’이다.

요컨대 내집의 글들은 (모두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대체로 금계의 학문이 어느 정도 가다듬어졌을 때의 글들이며, 퇴계의 영향이 짙게 배인 글들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결국 外集의 글은 대체로 이런 관점에서 그 전형성이 다소 덜한 글들이라 할 수 있는데, 때문에 논자는 주로 외집 가운데 1차 사환기까지의 글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 가되 필요에 따라 내집에 실린 1차 사환기까지의 작품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금계 원래의 사유와 개성이 일정 정도 드러나리라고 기대한다.

II. 역사가적 면모와 역사의식

금계는 對策文에서 역사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問史才得失純駁」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과시에서 올린 대책문이다.⁸⁾ 이러

8) 이 글이 지어진 정확한 시기는 비정하기 어렵다. 다만 금계가 18세에 남성시에서 대책문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이 때 지은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글의 특성상 여기에 적힌 모든 내용이 온전히 금계 자신의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힌 것인지, 혹은 역사나 역사가의 책무와 자질에 대해 금계가 평소에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일언에 명쾌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설령 對策이라 하더라도 작자의 진심이 담기기 마련이고, 또 오히려 대책이기 때문에 定見을 펼친 것일 수도 있다.

윤천근은 일찍이 금계의 역사인식을 다룬 논문에서 금계와 그의 역사인식에 대해 ‘조선의 성리학자 일반의 것’이고, ‘금계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쉬워하며, ‘금계의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논제는 그 자체로써 성립할 수 없을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⁹⁾ 그러면서도 이 「問史才得失純駁」이라는 글과 관련하여 사관의 중요성과 자격에 대해 논한 것을 매우 유심히 주목했다.

금계는 이 글에서 역사가에 대해 ‘문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금계는 역사가의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학문, 자질, 절조’를 들었다.¹⁰⁾ 군신의 언행과 정치의 향방이 모두 사관의 역할과 직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윤천근의 지적대로 금계의 이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아니 성리학자에 국한된다기보다 유가의 보편적 史觀에 가깝다고 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다만 그 시대 지식인들에게 오늘날의 역사학자와 같은 시각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 역사와 역사가에 인식이 얼마나 개성적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식이 얼마나 치열한가이다. 전통시대 지식인에게는 고민의 밀도가 인식의 참신함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금계의 역사 인식은 유심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問史才得失純駁」에서 언명한 ‘학문, 자질, 절조’를 금계의 다른

9) 윤천근 교수의 시각과 논지에 매우 공감하지만, 다만 금계의 역사인식을 퇴계 학문의 입장과 성격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 윤천근, 앞의 논문, 84~85쪽.

10) 황준량, 『錦溪集』 卷8, <問史才得失純駁>, “夫然故爲天下之士而荷載筆之任者, 有其學而無其才, 則固不能當其職也. 有其才而無其節, 則亦不能盡其任也. 必使學也才也節也, 兼盡備具而無少欠缺, 然後始可與當史之職, 而盡史之任也.”

글들에서 찾아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天道 전승의 역사의식

『問史才得失純駁』에서 금계가 역사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재삼 강조한 것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 스스로를 역사가로 자처하는 의식이 내재해있었기 때문이다. 그 의식은 금계에게 오늘날 시각에서 민족주의적 역사의식에 가까운 어떤 개념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당시 문인관료의 보편적인 士의식의 한 국면이었다. 역사가의 필수 요건으로 금계가 지목한 ‘학문, 자질, 절조’도 실상 조선 시대 士의식의 전형적 틀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글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의식은 사실 그 연원이 깊다. 사마천이 자신의 『史記』를 저 『春秋』의 정신을 잇는 사업이라 생각한 것은 자신을 공자의 학문적 후예로 생각한 때문인데, 사마천 이후 이런 의식은 지식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정착되었다. 사마광, 호안국, 주자도 마찬가지이다. 금계 또한 다르지 않았다. 士의 본분으로서 역사의식이 강했다. 말하자면 역사가에게는 士의 정신이 강력히 요구된다 할 수 있는데, 금계는 그 첫째 덕목을 학문이라 보았다.

역사가에게 학문이 중요하다면 그 학문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箕子爲武王陳洪範論」를 중심으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찍이 『漢書』 「五行志」를 살펴보니 “禹가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이 洛書를 내려주어 우가 이를 법으로 삼아 진열하였으니, 바로 「洪範」이다.” 하였다. 그 뒤에 武王이殷나라를 정벌한 뒤 箕子를 찾아가 天道를 묻자 기자가 「洪範」으로 진술하였다. 우는 어떻게 하늘에서 천도를 받을 수 있었는가. 또 기자도 어찌 무왕을 위하여 진술한 것이겠는가? 나는 우에게 준 것도 하늘이고, 무왕에게 전한 것도 하늘이라 생각한다.¹¹⁾

11) 황준량, 『錦溪集』 卷8, <箕子爲武王陳洪範論>, “嘗按漢志, 禹治洪水, 錫洛書, 法而陳

우임금은 하늘로부터 天道를 받아 후대에 전하였다. 기자는 우임금의 천도를 이어받아 무왕에게 진술하였다. 그 천도는 우임금 시대에는 「洛書」에 담겼고, 기자의 시대에는 「洪範」에 담겼다. 이 「洛書」와 「洪範」은 유가 학문의 연원이자 정수이다. 무왕이 기자를 찾아가 천도를 물은 것은 기자가 천도의 담지자이기 때문이다.

“성인은 하늘을 본받는다.”는 말로 금계는 「箕子爲武王陳洪範論」의 문장을 열었다.¹²⁾ 이 말은 오랜 유가적 사유이거나 “성인은 하늘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현인은 성인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선비는 현인처럼 되기를 희망한다.[聖希天 賢希聖 士希賢]”라고 『通書』에서 周敦頤가 한 말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주돈이의 사유를 금계의 글에 대입하여 해석해보면 ‘우임금과 같은 성인이 하늘을 회구하여 천도를 얻고, 기자와 같은 현인이 성인을 회구하여 천도를 계승했다면 지금 시대의 士는 기자를 회구하여 그 천도를 이 시대에 천명해야 하는 것이 使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문’을 통해 ‘천도’를 계승하는 것이 ‘인류 지성의 역사’요 그 주체가 ‘士’인바, 士로서 역사가는 결국 천도의 계승자요 학문은 그 전승의 실질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금계가 역사가에게 학문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이다.

2. 기록 實證의 역사 의식

역사가의 역할과 중요성에서 금계가 학문만큼 귀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가로서의 자질이다. 그런데 이 자질이란 것도 앞에서 논한 학문과 무관하지 않다. 역사와 문헌을 대하는 역사가의 태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계는 자신 나름의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글이 「桃源辨」이다.

之, 洪範是也. 其後武王伐殷, 訪箕子以天道以洪範陳之, 禹何得受之於天, 而箕子亦豈欲爲武王陳之也? 予以謂與之禹者天也, 而傳之武者亦天也.”

12) 황준량, 『錦溪集』 卷8, <箕子爲武王陳洪範論>, “聖何法乎曰法乎天, 天可逆乎曰不可逆.”

금계는 옛 문헌을 보는 가운데 역사류 서적에서 商山四皓가 「紫芝歌」를 부르며 은거한 일과 徐市이 불사약을 캐러 동해로 간 일 등을 발견하였다. 이 고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에 관해 금계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四皓나 徐市 류의 인물이 진나라 시대에 실존했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일면 인정하였다. 이런 인물들은 진시황의 폭정에 저항한 세력이요 道家와 일정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로 도연명이 언급한 저 武陵의 桃源 사람이 있다. 이들도 진시황의 폭정에 순응하지 않은 세력이다. 다만 이들이 앞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전승될수록 단순히 道家적 색채가 짙은 부류의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공간을 초월한 신선들처럼 상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모티브로 한 무수한 고사들이 파생된다. 대표적으로 ‘爛柯’ 고사와 같은 것들이 있다. 금계는 세상을 피해 사는 인물들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실존하는 신선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사 가운데 好事者들이 근거 없이 전한 것에서 나온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신빙할만한 史籍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군자가 반드시 분변해야 한다. 대개 고사가 설령 역사가의 紀傳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文勝(지나친 각색-필자주)의 폐단을 면하지 못해 간혹 허무맹랑하다는 비판을 받곤 하는데, 더구나 괴이한 것을 좋아하는 호사자들이 날조하여 전하는 말들을 어찌 그대로 따라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겠는가?¹³⁾

여러 문헌들에 실려 전하는 고사들은 그 사이사이에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이 버무려져 있다. 그중 어떤 것은 원작보다 훨씬 부풀려지기도 하고 창작자의 명성과 권위에 힘입어 사실인양 인식되기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기이한 버전으로 변개된다. 게다가 무수

13) 황준량, 『錦溪集』 卷8, <桃源辨>, “事有出於好事之浪傳, 而非信史之所載者, 君子之所必辨也. 蓋事雖出於史氏之紀傳, 而猶不免文勝之弊, 或有孟浪之譏, 況好事之人喜怪創傳之語, 其可從而信之無疑乎?”

한 시인들이 새로운 상상력을 더하여 저마다 그 고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노래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인양 자리 잡는다.

금계는 역사가라면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반드시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문헌의 기록을 마냥 믿는 것을 금계는 경계했다. 도연명의 「桃花源記」에는 그 자체에 그들 스스로 진나라의 난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기술이 있음에도 후대에 점차 그들을 무릉의 신선으로 보는 무수한 버전의 이야기가 산성되었는데, 금계는 문인들의 이런 태도를 매우 경계했던 것이다. 그리고 진나라 난을 피한 유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韓愈의 지적에 ‘천고의 일대 쾌사’라고 크게 공감하며 ‘이 역시 詳考하지 않고는 믿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평했다.¹⁴⁾

經史 이외에 괴이한 일을 기록한 책은 기괴한 사실을 파헤쳐 세상을 미혹시키는데 힘을 뿐이니, 과연 사실을 모아 믿을 만한 것을 전했겠는가? 그러므로 공자는 괴이한 것과 귀신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맹자는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¹⁵⁾

따지고 보면 한유의 지적이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릉의 도화원 사람들을 신선처럼 여겨 노래하던 것이 보편적이던 종래의 문화를 감안해 보자면 금계가 말하려는 진의를 알 수 있다. 금계는 경서와 역사서 이외의 문헌에 기록된 기이한 이야기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事實 진위를 가름하는 태도를 말하면서 공자와 맹자를 끌어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

14) 황준량, 『錦溪集』 卷8, <桃源辨>, “昌黎題其圖曰, 世俗寧知僞與眞, 至今傳者武陵人, 此亦謂其無稽而難信也. 退之好右博雅君子也. 自晉大元至唐貞元, 世不相遠, 必有聞而知之, 猶不信好事之圖, 指爲荒唐之說, 人始知桃源之非仙, 而只以避世之氓目之, 此亦千古之一快也.”

15) 황준량, 『錦溪集』 卷8, <桃源辨>, “經史之外, 志異之書, 披奇摘怪, 惟務惑世, 果可聽實而傳信耶? 故曰子不語怪神, 孟子曰不如無書.”

다. 이것이 금계가 말하는 역사가의 자질인바 곧 문헌을 대하는 안목과 태도이기도 하다.

여기서 공자와 맹자를 다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怪力亂神의 괴이한 이야기를 멀리한 공자의 태도는 문헌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진실에 근거하여 저술하는 태도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書を 맹신하지 않는다는 맹자의 태도는 기록문헌을 실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증하고 분석하는 태도와 한층 긴밀하게 연결된다. 곧 기록과 해석에서 모두 이성적이고 합리적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금계가 말하는 역사가로서의 자질이다.

3. 斷罪와 責備의 역사의식

‘학문과 자질’이 역사가에게 요구되는 우선 덕목이라면 그 완성은 ‘절조’이다. 금계에게 그것은 斷罪와 責備의 역사의식으로 드러난다.

역사가가 학문을 하고 이성적 자세를 견지하여 문헌을 실증적으로 고증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 올바른 천도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위함이며, 종당에는 그것을 통해 지난 역사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오늘 정치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통시대에 지난 역사를 비판하거나 당대 현실의 모순을 개혁하려는 일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까닭에 역사가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념과 지조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금계가 말하는 절조이다.

본래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고 겉으로 적을 친다는 이름만 빌린다면 아무리 날마다 친히 정벌하겠다는 조서를 내린다 한들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 하겠는가? 내장차 이로써 宋 高宗의 죄를 결단하려고 하니 비단 懦弱한 자가 서지 못해 自強하지 못한 것일 뿐만이 아니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구차하게 안주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끝내 간신들에게 誤導되고 말았으니, 몇 줄의 조서가 과연 한 때의 자취를 감출 수 있겠는가?¹⁶⁾

위는 「書宋高宗親征詔後」의 한 부분이다. 宋 高宗은 휘종의 아우로서 금나라의 침략을 피해 1129년에 臨安으로 도읍을 옮긴 남송의 첫 군주이다. 고종은 남송이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하여 中興祖로 인식되었고, 晉安王을 후사로 삼아 禪位한 일로 종종 성군이라 칭송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격이 유약하여 끊임없이 금나라와 화친을 맺으려 하였고, 결국 화친을 맺었다. 그 과정에서 岳飛, 韓世忠, 趙鼎 등과 같은 많은 강직한 충신을 귀양 보내거나 죽였다.

그런데 고종은 南遷한 지 30여 년이 지난 1161년에 와 갑자기 ‘친히 금나라를 치겠다’는 親征詔書를 발표하였다. 금나라 황제 完顏亮이 和議 약정을 어기고 재차 남침했기 때문이다. 역지로 강화를 강행했던 일로 고종은 이미 진작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오던 터였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남침을 받자 여론은 매우 악화되었다. 하지만 親征詔書의 위력은 작지 않아 사람들은 親征을 高宗의 진심이라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송 고종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여기에는 親征詔書의 영향이 없지 않다. 龜村 柳景深(1516~1571) 역시 같은 제목의 글을 남긴바, 그 글에서 귀촌은 이 親征을 끝내 단행했다라면 중원을 회복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고종의 조서가 重興 第一功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고종의 진심이 화친에 있지 않고 복수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찬탄하였다.¹⁶⁾

이런 여러 정황에서 알 수 있듯 금계의 글은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 親征詔書를 두고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약한 자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으며, 나아가 끝내 간신들에게 誤導되어 환란을 키운 실책을 결코 알량한 친정조서 한 장으로 숨길 수 없노라고 질타하였다. 금계의 눈에는 이는 단순히 유약한 자의 自強하지 못하는 문제 따위가 아니었다. 때문에 고종을 ‘斷罪’한다고 하였다. 조선의

16) 황준량, 『錦溪集』 卷8, <書宋高宗親征詔後>, “是則本無復讐之心而外假討賊之名, 雖日下親征之詔, 其可謂誠心之所發乎? 吾將以是而斷高宗之罪, 則非翹懦弱無立, 不能自強而已. 姑息苟安之心勝, 而卒爲奸臣之所誤, 則數行之詔, 果可以掩一時之迹乎?”

17) 유경심, 『龜村集』 卷2, <書宋高宗親征詔後> 참조.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하로서 군주를 단죄하는 논리를 펴기는 쉽지 않으며, 더구나 문장 표현에 ‘斷罪’라는 말을 직접 드러내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글이 하나 더 있다. 『尊堯集』에 대한 금계의 비판이다. 『尊堯集』은 了翁 陳瓘(1060~1124)의 저술이다. 紹聖 연간에 편수한 『神宗實錄』이 王安石의 『日錄』의 史觀에 근거하여 지어진 것이므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요옹이 귀양 가 지은 저술이다. 이 때문에 『尊堯集』은 역대의 문인학사들에게 무수한 찬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금계는 ‘이해가 미진하여 군자의 기풍을 받기에 족하다’고 비판한다.¹⁸⁾

合浦가 저술한 것을 보니 회피하고 隱畏한 자취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왕안석의 의미한 心術에 대해 분명히 적발함이 미진하고, 大觀(회중)이 뒤늦게 뉘우친 것으로 말하면 비록 나라를 미혹시키고 조정을 그르친 죄를 잘 지적하기는 했으나 또한 주절주절 빙빙 돌려 말하였다. 그래서 비록 奸黨의 邪說을 밝히고 일시의 公論을 의탁하기에 충분하지만, 또한 일말의 私意가 개입된 실책이 없지 않다. (중략) 이는利害의 사사로움에 가까워 정미한 義理에 밝지 못한 듯하니, 大儒의 사업과 비교해보면 또한 밝은 달에 조금 흠이 있는 격이다. 그러나 일신을 잊고 참소의 칼날을 범하여 公議를 귀하게 여기고 人紀를 부지하여 간사한 말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풍도를 듣는 자가 나약함을 떨쳐 기운을 복돋울 수 있다. 그 공이 어찌 적겠는가? 내가 이 때문에 전말을 기록하여 『春秋』의 責備하는 뜻을 붙인다.¹⁹⁾

合浦는 요옹이 귀양 가 『尊堯集』을 지은 곳이다. 금계는 『尊堯集』의 성과를 일정하게 인정하면서도 ‘왕안석의 저의를 명쾌히 비판하지 않은

18) 황준량, 『錦溪集』 卷8, <書尊堯集後>, “然理會未盡, 而間有畏避嫌疑之私, 則終未免於依違遷就之失 而適足以來君子之譏, 若四明之尊堯集是已.”

19) 황준량, 『錦溪集』 卷8, <書尊堯集後>, “觀合浦所著, 則似有回避隱畏之跡, 而於介甫心術之微, 未盡擿伏之明. 至於大觀追悔之作, 雖能指其迷國誤朝之罪, 而亦有回互把持之語, 則雖足以發奸黨之邪說, 托一時之公論, 而亦未免些兒私意之失也. … 此則未免迫於利害之私, 而於義理精微, 似未瑩澈, 較之以大儒事業, 則亦明月之微瑕也. 然忘一身而犯讒鋒, 惜公議而扶人紀, 使邪遁之辭, 無以售其謀, 則聞風者可以激懦而增氣矣. 其功亦豈小哉? 愚故書其終始, 以附春秋責備之義.”

것’과 ‘휘종의 잘못을 애매하게 변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말의 私意’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私意의 원인을 ‘利害의 사사로움’ 때문이라 진단하고, ‘밝은 달에 흠이 있는 격’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말미에 『尊堯集』에 나름의 의의를 부여하고 있지만, 금계의 진의는 역사의 잘잘못을 명쾌히 분변하지 않는 『尊堯集』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있다.

이 責備의 의식은 자신에게도 예외 없이 요구되는 덕목인바, 역사가의 역사 저술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요건이다. 이것이 현실정치에서 利害와 직결되는바, 責備는 금계에게 단죄 의식과 짝을 이루는바 역사가의 절조의 한 축이 된다.

Ⅲ. 士의 책무의식과 의리관

금계가 든 역사가의 세 덕목은 도식적인 순서상 그 완성이 절조이지만, 셋이 꼭 선후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이룬다. 학문이 없는 절조가 있을 수 없으며, 또 절조가 결여된 자질이 성립될 수 없다. 이 덕목들은 士의 책무의식에 다름 아닌바, 이는 금계에게서는 특유의 의리관으로 나타난다. 본장에서는 금계의 역사의식의 근저가 되는 士의 책무의식과 의리관의 주요 국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我私道公의 의리

앞의 장에서 금계가 역사가로서 학문을 대하는 의식과 관련하여 ‘천도 계승의 역사의식’이라는 말로 살펴본 바 있거니와, 이러한 금계의 의식은 그 특유의 의리관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士의 의리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天命을 계승하여 후대에 전하는 책무이다.

我是私이고, 道는 공이다. 내가 공을 이기지 못하듯 내가 도를 이길 수 없다. 어찌 차마 私로써 공을 멸하고 道를 나로부터 끊을 수 있겠는가. 箕子가 설령 시행하고자 하지 않았다 한들 하늘은 필시 몰래 인도하여 시행하게 했을 터이니, 하늘은 결코 스스로 그 도를 끊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商이 스스로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자 周 武王이 하늘의 혁명에 호응했으니, 성현이 또한 무슨 마음이었겠는가? 천명이 어떤지를 볼 뿐이니 몸은 비록 신하노릇을 할 수 없었으나 도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²⁰⁾

‘我是私이고, 道는 공이다’라고 말하는 금계의 사유는 유교지식인의 보편적 사유의 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내가 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한 발언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내가 도를 담당한다’는 기존의 보편적 책무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 엄중한 책무의식은 ‘도를 나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不可抗의인 不可避의인 사명의의식으로 드러난다. 기자로 말하면 「홍범」을 전한 것은 기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의 의지라는 뜻이다. 역사가로서의 이러한 막중한 책무의식, 이는 바로 士의 책무의식과 의리관에서 발로한 것이다.

我私道公의 의리를 강조하는 금계의 사유를 주목하는 이유는 인용문의 맨 마지막 부분의 발언과 관계해서이다. 기자와 같은 성현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현의 계승자인 士는 오직 천명의 향방에 마음을 둘 뿐이다. 따라서 현실 정치가 부도덕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순의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어도 道는 전해야 한다. 이것이 士의 의리이다. 정리하자면 특정 왕조나 특정 임금의 정치에 조력하지 않는 것은 자유의지요 개인적인 절의의 실천 문제이지만, 天命의 道를 전하는 책무는 회피할 수가 없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의리라는 뜻이다. 금계가 士로서 역사가에게 반드시 학문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나는바, 금계에게 이는 숙명과 같다.

20) 황준량, 『錦溪集』 卷8, <箕子爲武王陳洪範論>, “我私也, 道公也. 私不勝公, 則我不勝道, 安忍以私滅公, 而道自我絕也. 箕子雖不欲陳, 天必陰誘而陳之, 天必不欲自絕其道矣. 況商受自絕于天, 而周武應天革命, 則聖賢亦何心哉? 視天命何如耳. 身雖不可臣, 而道不可不傳也.”

특히 금계에게서 이 ‘我私道公의 의리관’이 중요한 것은 이 의리관이 금계 의리관의 전반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 義利 分別의 의리

금계가 ‘我私道公’를 중시했다고는 하지만, 무엇이 我이고 私이며, 무엇이 道이고 公인지 명확히 알아 분변해야 尊公傳道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公私의 분별이 선명하지 않으므로 그 일이 생각만큼 꼭 간단하지는 않다. 금계는 그 출발을 학문에서 義와 利를 분별하는 데에서 찾는다. 금계는 특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묻는다. 군자의 학문은 義와 利의 구분을 밝히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다. 털끝만한 차이가 천리로 어긋나는 것이니 義와 利를 분변하는 방도에 대하여 들을 수 있겠는가?

① 하늘이 처음 명을 부여해줄 때 이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원래 兩端이 상대하고 있어 義와 利가 생기는가? ② ‘惟精惟一 惟危惟微’의 뜻과 ‘敬勝怠吉 怠勝敬滅’의 경계가 서로 규계하고 있음에도 聖명한 帝王 역시 반드시 規箴을 받아야 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③ 義와 利는 공자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인데 子思는 백성을 다스리는 방도 가운데 가장 중시하였다. 그 의도는 무엇인가? ④ 『대학』의 경우 전10장에서는 거들거들 경계했지만 格物致知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맹자』의 경우 첫 장에서 말한 이래 전편에 걸쳐 반복하여 말하여, 전후로 강약이 같지 않다. 혹 별도의 은미한 뜻이 있는 것인가? ⑤ 동중서의 ‘의를 바로잡고 도를 밝히는 說’과 한유의 ‘도를 밝혀 천명한 論’에 대해 유학의 적통을 얻고 또한 세상의 교화에 보탬이 있다 할 수 있는가? ⑥ 張子房은 儒者의 기상을 지녔고, 諸葛孔明은 王者를 보필할 재능을 지녔으니, 義와 利의 구분을 밝혀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⑦ 濂溪는 선악의 기미를 분석했고, 程子是 오로지 致知의 경을 말했다. 여기에 말할 만한 同異가 있는가? ⑧ 주자는 立言에 신중하여 하찮은 것도 자세히 살펴 세상을 구하고 교훈을 남겨 조금도 미진함이 없었다. 張南軒의 無所爲와 有所爲에 관한 설은 이전 성인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것을 확충한 것이다. 그 또한 스승에게 전수받은 바가 있는 것인가?²¹⁾

이 글은 금계가 鄉試의 시관으로서 출제한 對策 部문의 科題이다. 유생들은 이 科題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밝혀 대책문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금계가 義와 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 글에 직접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科題 자체에 이미 義와 利에 대한 심상치 않은 금계의 사유가 드러난다.

문제는 모두 아홉이다. 처음은 총론격의 질문이고, 이하 나열된 여덟 조목은 義·利에 관해 쟁점이 되어온 안건을 시대별로 경전과 선현의 저술에서 뽑은 것이다. ①은 성리학의 기본 논리 형식에 바탕하여 질문한 것이다. 理에는 善惡의 양단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義와 利가 본디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이는 利가 이치상 없을 수 없음을 인정 한 위에 그것을 어떻게 분변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②는 『상서』와 『예기』, 『논어』와 『순자』에 전하는 말에 바탕하여 聖王도 義利의 분변에 대한 경계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이다. ③은 공자도 말하지 않은 ‘利’를 그 손자인 자사가 목민의 방도로 중시한 까닭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子思子全書』 外篇 「魯繆公」에 맹자가 목민의 급선무에 대해 물었을 때 스승 자사가 ‘먼저 이롭게 하라[先利之]’고 말한 것을 두고 한 질문이다. ‘仁義가 사실 진짜 利’라는 것이 자사의 생각이다.

아래로 이어지는 질문들 역시 비슷한 방식과 맥락이다. 금계가 던진 질문들은 모두 ‘실상 義와 利는 본래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 모두에게 이로운 公은 義이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私는 利이므로 그 경계를 잘 분변하라’는 것이다. 요컨대 원론적으로 말하면 모

21) 황준량, 『錦溪集』 卷8, <策問>, “問: 君子之學, 莫先於明義利之分, 差之毫釐, 謬以千里, 其所以卜之之道, 可得聞歟? 降衷之初, 具此衆理, 則元有兩端相對而生歟? 精一危微之旨, 敬怠義欲之戒, 交相警勸, 聖帝明王, 亦必有待於規箴, 其故何歟? 聖門教人, 在所罕言, 而子思子先之於牧民之道, 其意何居 大學申戒於末章, 而不及於格致之上. 孟子昌言於開卷, 而反覆乎七篇之中, 其先後詳略之不同, 抑別有微意歟? 董子正誼明道之說, 韓子原道發明之論, 有得於聖門遺緒, 而亦有補於世教歟? 張子房有儒者氣像, 諸葛孔明有王佐之才, 可謂明二者之分, 而不負所學歟? 濂溪剖析於善惡之幾, 程子專言乎致知之敬, 亦有同異之可言歟? 朱晦菴倦倦於立言之際, 致察於抄忽之微, 救世垂訓, 已無餘蘊, 而張南軒無所爲·有所爲之說, 擴前聖所未發, 其亦有所師承歟?”

두 理인데, 다만 人心과 道心 혹은 公과 私에 따라 眞과 假가 나뉜다는 뜻이다. 眞利는 義이고 假利는 利이다. 이 논리의 틀이 四七性情論과 비슷하다는 것도 주의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 장의 논리는 앞 장의 我私道公와 일맥상통한다. 금계의 질문들은 모두 이러한 뜻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질문들에 인용된 전거의 범위와 내용들을 보면 평소 금계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었는지 잘 드러난다. 특히 금계는 뒷날 「丹陽鄉校重創記」에서도 ‘학문을 하는 순서는 義와 利를 분별하는 데에 신중하고 誠과 敬의 실상을 체득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²²⁾

3. 忠諫의 의리

我와 道, 私와 公, 義와 利에 대해 금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분별에 힘썼던 이유는 그 자신 현실 정치에 몸을 담은 관료로서 道義와 私利의 판단에 절실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利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공공성(公)과 도덕성(道義)이 확보되면 利 또한 좋은 것이다. 백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公利, 그것이 道와 義이다. 앞 절에서 보듯 금계가 대책의 試題로 이것을 다룬 것으로 보아, 子思가 仁義를 실질적인 利라고 한 것에 금계는 대체로 동의한 듯하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관료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젊은 시절 금계는 말은바 직분의 소임을 다하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생각한 듯하다.

성균관 박사와 전적, 병조 좌랑과 승문원 검교를 두루 거친 금계는 35세 되던 1551년 9월26에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8일에 사간원의 건의로 체직되었다. 사간원에서 탄핵할 때 지목한 이

22) 황준량, 『錦溪集』 卷4, <丹陽鄉校重創記>, “至於爲學之序, 則謹義利之辨, 體誠敬之實.”

유는 ‘성질이 안정되지 못하다.’라는 다소 모호한 말이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짐작할 단서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 다만 ‘新進 인물이 만약 안정되지 못하면 반드시 후일에 폐단을 끼친 것’이라거나 ‘조급하게 진급하려는 풍조’라는 뒤이은 말을 볼 때, 당시 젊은 금계가 조정에서 제법 당돌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을 살펴보자.

말을 해서는 안 될 때 말하면 소경이나 다름없고,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비겁자나 마찬가지이니, 언행의 樞機는 군자가 삼가야 할 바이다. 분위기를 살펴 직언하는 것이 진실로 저의 진심이 아니고, 입을 다물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차마 제가 할 바가 아닙니다. 무릇 그 지위에 있으면서 마땅히 그 도를 굳게 해야 하고 그 도를 극진히 할 뿐입니다. 어찌 회피하고 위축되어 벼슬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것에 스스로 뇌동하여 평생 배운 바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대는 세상에 드문 英才이고 당대의 韓愈입니다. 반드시 조만간 크게 등용되어 간관이 되고 재상이 되어 태평성세를 열고 임금을 보필할 힘을 다하여 興王賞諫의 명성을 드러내고 巖穴聞風の 선비를 흥기시킬 것이니, 황실에서 의지하고 역사에서 칭송하는 것을 장차 반드시 그대의 힘을 입을 것입니다. 이 늙은이는 이에 눈을 닦고 기다립니다.²³⁾

벼슬길에 나아간 士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인가. 憲府의 신하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인가. 금계는 이런 문제에 오래도록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이것이 我私道公나 義利 분별의 의리관과 만나면 신하로서 충간의 의리로 촉발된다. 위의 글은 그 결과이다. 금계는 현실 정치에 눈먼 소경과 같은 관료도 또는 알고도 입을 닫는 비겁자도 경계했다. 신진인 금계가 탄핵당한 일은 이런 평소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23) 황준량, 『錦溪集』 卷8, <范仲淹答歐陽脩論不諫書> “夫不可言而言, 則近於瞽, 可言而不言, 則失於懦, 言行樞機, 君子之所慎也. 計以爲直, 固非仲淹之所欲, 而結舌苟容, 又非仲淹之所忍爲也. 凡居其位 當直其道而已, 盡其道而已, 豈可回避畏縮, 自同於患失之態, 而負平生之所學哉? 今足下間世之英才, 當代之韓愈也, 必且朝夕大用, 爲諫官爲宰相, 而鳴朝陽之鳳, 盡回天之力, 彰興王賞諫之名, 起巖穴聞風之士, 倚重於皇家, 丹青於史筆, 將必有賴於子. 老夫於此, 拭目以俟之.”

위 글의 제목은 「范仲淹答歐陽脩論不諫書」이다. ‘구양수가 간언을 하지 않는 일에 대해 논파한 것을 두고 범중엄이 답한 글’이란 뜻이다. 송나라 경우 연간에 天章閣待制로 있던 范仲淹이 國事를 함부로 논했다는 죄를 받고 睦州로 좌천된 일이 있다. 이때 동료인 司諫 高若訥이 인종의 총애를 받고 있으면서도 범중엄의 좌천에 대해 어떠한 직언도 올리지 않자, 이에 실망한 館閣校勘 歐陽脩가 고약눌에게 편지를 보내어 간언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논파하여 책망한 것이다. 이 일로 구양수 역시 史陵縣丞으로 좌천되었다. 글의 제목은 고약눌을 논박한 구양수의 글을 본 범중엄에 금계가 자신을 가탁하여, ‘범중엄 입장에서 구양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자신을 범중엄에 가탁한 금계는 ‘분위기를 살피 직언하는 것이 진실로 저의 진심이 아니고, 입을 다물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차마 제가 할 바가 아닙니다. 무릇 그 지위에 있으면서 마땅히 그 도를 굳게 해야 하고 그 도를 극진히 할 뿐입니다.’ 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憲府의 지평으로 도를 굳게 하고 도를 극진히 하는 것이 올바른 책무요 의리인바, 그것은 다름 아닌 충간의 의리이다. 벼슬을 잃을까 걱정하여 시류에 뇌동하는 것은 올바른 신하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글에 탄핵당할 당시 조정의 정황과 사헌부 지평이 되어서도 충간의 의리를 끝내 지키고자 하였던 금계의 굳은 절조가 잘 드러나 있다고 판단되는바, ‘計以爲直’ 곧 눈치를 보며 실리를 헤아려 직언을 하는 ‘체’ 하는 것은 금계에게는 私와 利를 추구하는 마음일 뿐이다. 조정의 신진 관료로서 사헌부 지평이 되어 오직 道와 義를 추구하는 것, 충간의 의리는 그것의 실천이다.

4. 關佛의 의리

당시 조정의 고관들은 금계를 ‘성질이 안정되지 못하다’고 지목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금계가 일찍부터 과감히 직언을 올려 선배들로부터 당돌하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

건을 두고 한 말인지 단선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두 가지 특정 사건을 두고 지적한 것이라기보다 아무래도 금계의 평소 신조와 직무 수행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는 편이 옳을 듯하다. 신진으로서 헌부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금계에게는 그러한 지향과 태도가 있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건이 있다. 1550년, 즉 금계가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기 직전 해인 명종 5년 12월, 혹은 1551년 초 사이에 금계는 한 통의 상소를 올린다. 상소는 「請革兩宗疏」이다.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자 이복동생 경원대군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했다. 명종이다. 겨우 소년티가 나는 어린 임금 대신 모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는데, 문정왕후는 불심이 깊은 인물이었다. 명종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1548년, 문정왕후는 普雨를 중용하여 정책적으로 불교를 후원하였다. 度牒制를 실시하고 僧科를 부활하였으며, 무엇보다 1550년 12월 15일에 禪宗과 敎宗의 복립을 명하는 윤음을 내렸다. 이미 많은 양민들이 균역을 피해 산사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兩宗의 복립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兩司의 주청에도 문정왕후는 윤택하지 않았다. 「請革兩宗疏」는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다.

한편 淨業院을 복설하라 하시고, 한편 선종과 교종을 복립하라고 하시니, 政令을 운위하는 사이에 불교를 높이 받드는 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유학자는 숨을 죽이고 승려 무리는 소매를 떨치며 활보하고 있으니, 斯道의 흥망이 가름 났고 국가의 안위가 결판났습니다. 전하께서 6, 7년 동안 근심하며 밤낮 애쓰신 공을 그 선정과 함께 차마 폐기하게 만드니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국사에 기록되고 후세에 전해져서 후세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비웃는 것이 마치 지금 사람이 옛날을 비웃는 것과 같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신 등은 모두 간언을 드릴 책임이 없음에도 누차 상소하여 성상의 귀를 시끄럽게 하니 직위를 벗어난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邪說이 정도를 해치는데 대하여는 누구나 攻斥할 수 있습니다. 충정과 울분이 북받쳐 내외를 분간하지 못하와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차마 좌시할 수 없기에 감히 죽음을 각오하고 하늘의 밝은 태양이 다시 회복되기를 빕니다. 엇드려 바라옵건대 聖慈계오서는 살피주시옵소서.²⁴⁾

淨業院은 조선시대 궁궐 내에 있던 비구니 사찰로, 임금이 죽으면 그 임금을 모시던 妃嬪들이 불교에 귀의하여 살아가던 공간이다. 고려시대에 이미 이 정업원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도 도성에 세워졌는데, 세종 30년인 1448년에 척불정책에 의해 폐지되었다. 불교를 좋아한 세조 때에 다시 복립되었으나 성종 때에 유생들의 건의로 폐지되어 한 동안 독서당으로 사용되었다. 1517년(중종12) 이후로는 폐찰이 되었는데, 1550년 3월에 문정왕후가 복설을 명한 것이다.

정업원 복설을 명한지 6개월이 지나 문정왕후는 다시 선종과 교종을 복립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유교를 국교로 조선을 건국한 이래 斥佛을 표방해온 조선 왕실의 정신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유교 지식인에게 이 사건은 邪道の 횡행과 正道의 침몰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징후와 같은 것이었다. ‘우리 유학자는 숨을 죽이고 승려 무리는 소매를 떨치며 활보하고 있으니, 斯道の 흥망이 가름 났고 국가의 안위가 결판났다’는 금계의 저 발언은 당시 유교 지식인들에게 문정왕후의 정책이 어떻게 비쳐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금계는 병조좌랑으로서 사간원이나 사헌부에 있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반드시 직언을 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럼에도 금계는 과감히 혁파를 청하는 소를 올렸다. ‘邪說이 정도를 해치는 것에 관하여는 누구나 攻斥할 수 있다’는 논리 아래 ‘우리 임금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賊이라고 한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해가며 ‘문정왕후의 잘못된 행동은 바로 전하의 잘못’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부친상을 마치고 이제 막 내직으로 복귀한 34세의 신진이 직위를 벗어나 당돌하게 문정왕후의 정책을 규탄한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처신이 문정왕후와 당로자들에게 몹시 거슬렸음은 당연한 일이다.

24) 황준량, 『錦溪集』 卷4, <請革兩宗疏> “而一則曰創淨業, 一則曰立兩宗, 政令云爲之間, 莫非增崇釋教之事. 而斯文屏氣, 緇流聳袂, 道之興衰判矣, 國之安危決矣. 忍使六七年憂勤宵旰之功, 竝與其善政而棄之, 豈不痛哉? 豈不惜哉? 深恐國史書之, 後世傳之, 後之笑今, 亦猶今之笑古也. 臣等皆無言責, 屢瀆聖聰, 未免越位之罪, 第念邪說害正, 人得以攻之, 忠憤所激, 罔間內外, 痛哭流涕, 不忍坐視, 敢冒鈇鉞之誅, 冀回天日之明, 伏惟聖慈垂鑑焉.”

이 「請革兩宗疏」를 올리면서 금계는 불교가 국정에 끼치는 폐단이나 승려들이 저지르는 만행들에 원론적인 지적을 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다. 다만 불교가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신하가 임금을 배반하며 인간 도리를 끊고 하늘의 이치를 滅絶시키는 사교’임을 강조하고, 종종 시대를 이어 유학을 진작함으로써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금계의 진술에 한결같이 드러나는 것은 ‘불교의 배척과 유학의 존숭’이다. 금계는 국가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학문 장려와 關佛로 보고, 불교 배척을 위해 목소리를 다하는 것이 올바른 士의 책무요 의리로 생각한 것이다. 이를 앞의 我私道公의 의리 및 義利 분별의 의리와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사사로이 불교를 좋아해 불교 장려 정책을 펴는 것은 我요 利이며, 국가를 위해 斯道(유학)를 진흥시키는 것은 公이요 義인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잘 알 수 있듯 금계의 의리관은 내외를 관통하는 논리로 체계적이고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굳이 성격을 대별하자면 ‘我私道公’와 ‘義利’는 내적 이론이고, ‘忠諫’과 ‘關佛’은 외적 실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다.

IV. 나오며

윤천근은 금계가 생각하였던 역사가를 ‘志士’로 규정하였다.²⁵⁾ 이종호는 금계의 역사의식에 대해 성리학자의 입장이 강렬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면서 향후 황준량의 역사의식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이어지기를 고대한다고 하였다.²⁶⁾ 두 선행 연구자 역시 금계가 지닌 역사의식에 대단히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감지한 것이다. 다만 두 선행 연구자는 금

25) 윤천근, 앞의 논문, 101쪽.

26) 이종호, 「백운동 학풍이 이어 은혜를 베풀고 교육을 진흥한 목민관」, 『국역 금계집』, 안동국학진흥원, 2014, 3~4쪽.

계가 글을 쓴 시기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관행처럼 ‘성리학’ 혹은 ‘퇴계’와 연결 짓고 있다. 때문에 선학들의 주장과 그 결론에 대해 대부분 매우 동의하지만, 동시에 ‘성리학’ 혹은 ‘퇴계’의 영향으로 금계가 이러한 사유를 가졌다고 보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특유의 강렬한 역사의식과 의리관이 금계를 퇴계학의 특정 국면과 연결되도록 만들었다고 본다.

II장에서 살펴본바 역사가의 역할과 자질을 증시한 금계의 의식은 ‘士’와 ‘學問’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술한 대로 역사가인 ‘士’는 천도의 계승자요 학문은 그 계승의 실질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계의 본래 생각인바, 이러한 생각의 소유자가 퇴계의 학문과 만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역사와 문헌을 대하는 금계의 태도이다. 괴력 난신을 경계하는 공자와 기록을 맹신하지 않는 맹자의 정신은 유가의 합리주의적 사유인데, 이것이 문헌 해석과 연결되면 고증을 중시하는 실증주의적인 태도와 연결된다. 원전을 찾아 밝히거나 동일 사건에 관한 기록들 중 신빙할 만한 문헌들의 기록을 찾아 상호 대조하여 진위를 변증하고 오류를 판별하는 이러한 방식의 학문은 한참 뒤의 일이거나 학문에서 문헌을 중시하는 사유의 단초가 금계에게서 발견된다. 이러한 사유가 뒤에 퇴계를 만나 다듬어졌고, 1560년 성주 목사로 부임하여 『영봉지』를 묶을 때 퇴계에게 교감을 받거나 1561년 성주본 『주자서절요』를 편찬한 결과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리관 역시 같은 문제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私이고 天道가 公이요 義理라는 그 특유의 의리관과 關佛論을 살펴보면, 유학을 正道로 높이고 불교나 노장을 경계하는 사유와 통한다. 士가 지향해야 할 天道요 公이요 義理인 학문은 유학이고, 불교나 노장 또는 도교는 그저 개인이 사사로이 좋아하여 탐닉하는 기이한 책들이요 邪道일 뿐이다. 이는 노장을 경계하여 남명을 비판한 태도의 사유와 매우 흡사하다. 뒷날 퇴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건중의 좌우잡을 보았는데, 글을 구사한 기미가 모두 『參同契』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 현묘한 노장에도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 폐단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²⁷⁾라고 쓴 것을 보면 둘은 이러한 사유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임에 분명하다.

또 금계는 뒷날 퇴계의 명을 받아 『주자서절요』의 발문을 쓰면서 퇴계와 이 책의 공로에 대해 “表章之功”이란 말로 극찬했다. 이 말은 “罷黜百家, 表章六經”에 전거를 둔 표현이다. 이 말은 결국 퇴계의 만류에 의해 수정되기는 했지만 금계는 퇴계의 『주자서절요』를 성리학의 기본 텍스트로 그 지위를 자리매김하려 했던 것이다.²⁸⁾ 결국 금계가 자기 건강이 다치는 줄도 모르고 『주자서절요』 편찬과 성리학 공부에 침잠했던 이유는 실로 모두 天道를 담고 있는 正學(유학)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그 자신의 특유의 의리관이 퇴계와 만나 학문적 성격으로 확장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바 금계는 역사의식과 의리관에서 남달리 치열한 자기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 금계 본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난한 士의식과 학문에 대한 책무의식, 그리고 역사에 대한 비평 의식과 유학에 대한 자임의식은 그가 녹록한 관료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의 뛰어난 목민관으로서의 자질과 비범한 경세의식도 모두 이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그의 士 의식과 학문은 더욱 주의를 요한다. 금계는 퇴계학의 여러 국면 가운데 특히 『주자서절요』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는다. 다만 그것이 금계 특유의 역사의식 및 의리관이 퇴계를 만나 확장되고 다듬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을 이 논문에서 논하였다. 그 방법으로 퇴계와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전 1차 사환기까지의 글을 중심으로 금계의 본래 모습을 살펴본 것이다. 금계와 퇴계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금계의 학문과 문학이

27) 황준량, 『錦溪集』卷4, <上退溪書>, “向見曹建中座右箴, 節拍氣味, 皆自此中流出, 盛教玄妙老莊所無者, 可謂切中其病矣.”

28) 최채기, 「퇴계 이황의 『주자서절요』 편찬과 그 간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43~156쪽.

어떻게 변모했는지는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 이 논문은 2022년 1월 2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문집 및 자료

- 이현보, 『龔巖集』, 한국문집총간 제17집, 한국고전번역원.
이항, 『退溪集』, 한국문집총간 제29, 30, 31집, 한국고전번역원.
황준량, 『錦溪集』, 한국문집총간 제37집, 한국고전번역원.
정석태,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퇴계학연구총서 제3집, 退溪學研究院, 2001.

2. 연구논문

- 박노춘, 「금계선생문집해제」, 『국학자료』 36호, 장서각, 1980.
김기빈, 「『금계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37, 민족문화추진회, 1989.
윤천근, 「황준량의 역사 의식」, 『퇴계학』 2, 안동대퇴계학연구소, 1990.
우응순,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창설과 국문시가에 대한 방향 모색」, 『어문논집』 35, 안암어문학회, 1996.
김주한, 「금계 황준량의 簡介」, 『퇴계학제』 12, 안동대퇴계학연구소, 1992.
길진숙, 「주세붕의 『竹溪誌』 편찬과 시가관」, 『민족문학사연구』 11, 민족문학사학회, 1996.
최재남, 「금계 황준량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 한국한시학회, 1997.
강성준, 「금계 황준량의 문학과 사상」, 안동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98.
김시황, 「금계 황준량 선생과 풍기지역 퇴계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30,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1.
최채기, 「퇴계 이항의 『주자서절요』 편찬과 그 간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2.
이중호, 「백운동 학풍이 이어 은혜를 베풀고 교육을 진흥한 목민관」, 『국역 금계집』, 안동국학진흥원, 2014.
구원희, 「금계 황준량의 관력과 목민 활동」, 『영남학』 6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Abstract

A review of Geumgye Hwang Jun-ryang's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True loyalty.

Lee, Gyu-pil*

Geumgye Hwang Jun-ryang(錦溪 黃俊良, 1517~1563) is a very important person in Toegye School. However, for that reason, so far, research on him has mainly focused on finding out how Toegye Lee Hwang(退溪 李滉, 1501~1570) affected Hwang Jun-ryang. This paper raised some objections to this issue. This is because I thought it would be a desirable direction to illuminate Hwang Jun-ryang's original appearance first and to meet Toegye to find out how it transforms and expands.

Under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we explored the thoughts of scholars and historians, focusing on the early works of Hwang Jun-ryang, who entered the government office, and considered the very dens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loyalty. Among the various aspects of Toegyeology, Hwang Jun-ryang receives a lot of attent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Juseojeolyo』(朱子書節要). This paper tried to argue the following facts through this study. It is highly likely that Hwang Jun-ryang met Toegye to complete his studies, but his uniqu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True loyalty continued to work on the basis.

How the meeting between Hwang Joon-ryang and Toegye took place and how it proceeded remains a future task.

* An assistant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gdfeel@hanmail.net

keywords :

Geumgye Hwang Jun-ryang(錦溪 黃俊良, 1517~1563), Toegye Lee Hwang(退溪 李滉, 1501~1570), The thoughts of scholars(士) and historians, Historical consciousness, True loyalty.